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사랑 제목 :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두셨나 성경: 창세기 6장1-8절

-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 2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6:1-8)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특별한 은총,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누리기 원하셨다.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락하였다.

타락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단지 사탄에게 속아서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될지도 모른다는 황

당한 가능성에 도전하게 되어서 이지경이 된 것이다.

우리는 도전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 도전정신은 하나님께서 되려는데 사용하는게 아니라, 세상을 개척하는데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었다.

우리가 제대로 도전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 오늘날의 역사가 그 도전위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충분히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2:38)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토록 완벽하고 복된 환경에서도 타락하였으니, 이처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 두셨겠나? 뻔히 환경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 승산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타락의 중심에 무분별한 성생활이 있다. 결혼은 거룩하다.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난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생활은 온갖 죄악이 발생하게 되는 근원이다.

미워하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다투고 살인한다. 그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고 삶의 의미나 보람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어떤 쾌락을 탐하나 만족함이 없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다.

인생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억울하게 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은 나중에 더욱 악랄한 사람

이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처럼 한탄하신 것이다.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플랜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의 뜻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뜻. 세속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다.

사람은 세속적이 될수록 생각이 파괴되고, 육체가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고, 가정이 더러워지고, 저주가 쌓이게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사건사고가 잦아지게 되고,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왜 사람이 세속적이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목적이 쾌락에 있는지 만족에 있는지의 차이 때문이다. 인간은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 쾌락을 누리도록 창조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마귀는 쾌락이 곧 만족이라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쾌락이든지 극락이든지 간에 그것은 만족의 일부분에 속할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만족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극락이 곧 천국인양 속이는데, 그렇지 않다. 극락은 자기혼자 거짓된 쾌락에 들어가겠다는 것일 뿐이다. 극락 자체가 거짓일 뿐이다. 극락이 가능하다고 해도 극락에는 꼭 있어야 할 세가지가 없다. 그곳에는 사랑도 없고 경외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극락이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지경인데, 자기가 자기를 경외할 것인가?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도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자기가 생명의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있는 극락을 이룰 것인가? 극락이란 옛 뱀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쓰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아무튼 3절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사람의 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 1000년 정도의 수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살려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이 세속적으로 되었기에 성령께서 그를 떠나게 되고 그 몸의 생명은 고작 120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 영이 살아있었는데 죄악으로 그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아닌, ‘몸덩어리’ 혼한 표현으로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짐승’처럼 변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플랜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곧 노아의 홍수이다.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세속적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4절이다.

당시에는 네피림이라 불리우는 (어떤 종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영웅들이 있었고, 성경에는 그들이 유명한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로 그 유물들은 에덴동산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들이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압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꼬.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홍수를 계획하신게 아니시다.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홍수를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피림들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만큼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참담한 지경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 가닥 소망이 되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을 남겨두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누군가 실패하면, 그를 이어 성공할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실패하면 그 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는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실패는 더 열악한 환경만 낳을 뿐이다. 하와는 에덴임에도 불구하고 실패 하였지만, 노아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성공하였다. 물론 그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수는 없었지만, 멸망 가운데 몇 사람과 몇 동물들을 다음 세상에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전히 최악이 관영한 땅에 살면서 수명은 고작 120년이요, 게다가 준비하는 기간 20여년, 기운이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기간을 빼면 얼마 남지 않는다. 게다가 죄라도 짓고, 병이라도 걸리고, 사기라도 맞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적게는 몇 년 많게는 10여년을 허송하게 된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날 수가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있겠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희생할 수 있고, 삶의 의미도, 생명의 의미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보다 더 처절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생명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결코 인생은 실패가 없다.

<찬양예배>

주제: 기쁨 제목: 항상 기뻐하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24절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12-24)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끼리 화목하라

-영적인 지도자와 권위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사랑하며 귀히 여기라.

-경외감이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거짓된 경외를 사용한다. (위협, 협박)

-사람에게서 경외가 결석할 때 마치 소금 없는 음식처럼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만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경외에서 성공하라.

-경외하는 증거는 화목이다.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계하고>조심하라고 소리치라. 특히 게으른자는 방치하지 말라.

-격려하고>칭찬하라

-붙들어주고>도와주라

-오래참으라>빨리 변화되지 않는다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모든 사람에게

16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선을 행하면 당연히 기쁘다.

-단, 선을 행할 때 정죄감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다.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게으를 수 있으니 게으름을 주의하라. 특히 주의일과 관계 된 일은 잘 준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면서 감사하라. 제 뜻을 염두에 두면 불만이 된다.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유지> 19,20, 21, 22

-불을 끄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자기 취향으로, 자기 판단으로 흐르지 말라.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비교하고 덜한 것을 버리라.

-취할 줄도 알고 버릴줄도 알아야 한다.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특히 악한 것은 무조건 버리라. 모양이 이뻐도, 값나가도, 아까워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12-24)

-주께서 이루시리라. 아멘.

